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10)

數飛之鳥 忽有羅網之殃
(삭비지조는 홀유라망지앙이요)
輕步之獸 非無傷箭之禍
(경보지수는 비무상전지화니라)
故 世尊 住雪山 六年坐不動
(고로 세존이 주설산하사되 육년좌부동하시고)
達磨居少林 九歲默無言
(달마거소림하사 구세묵무언하시니)
後來參禪者 何不依古蹤
(후래참선자인들 하불의고종이리오)

자주 나는 새는 홀연히 그물에 걸리는 재앙을 만나고 가벼이 쏘다니는 짐승은 화살 맞아 상하는 화가 없지 않느니라 고로 세존께서 설산에 머무실 때 6년 동안 좌정하사 부동이셨고 달마 대사께서는 소림사에서 9년 동안을 묵언부동하시니 뒤 따라 마음공부 하는 사람인들 어찌 옛자취에 의지치 않으리오.

頌曰, 身心把定元無動 默坐茅菴絕往來
(송왈, 신심파정원무동하고 묵좌모암절왕래하니)
瀟瀟寥寥無一事 但看心佛自歸依
(작작료료무일사하고 단간심불자귀의어다)

게송을 말하노라.
몸과 마음 함께 정에 들어 흔들림 없고 띳집에 묵연히 앉아 왕래 끊으니 적적하고 고요할뿐 한 가지 일조차 없으매 다만 안으로 마음 살펴 자성불에 스스로 귀의하노라

其四 但親善友 莫結邪朋
(기사는 단친선우하고 막결사붕하라)
鳥之將息 必擇其林 人之求學 乃選師友
(조지장식에 필택기림이요 인지구학에 내선사우니)
擇林木卽其止也安 選師友卽其學也高
(택림목즉기지야안하고 선사우즉기학야고니라)
故 丞事善友 如父母
(고로 승사선우를 여부모하고)
遠離惡友 似冤家
(원리악우를 사원가니라)

넷째, 다만 좋은 벗과 친할 뿐 사악한 자와 벗하지 말라.
새도 쉬고자 하면 반드시 숲을 가리며 사람이 학문을 배움에는 스승과 벗을 가린다.
수풀을 잘 가리면 머물기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잘 고른 즉 배움이 높아 지리라.
고로 좋은 벗 받들어 섬기기를 부모 같이 하고 나쁜 벗 멀리하기를 원수진 집처럼하라

鶴無烏朋之計 朋豈鵶友之謀
(학무오붕지계니 붕기초우지모리오)
松眞之葛 直聳千尋 茅中之木 未免三尺
(송리지갈은 직용천심이요 모중지목은 미면삼척이니)
無良小輩 頻頻脫 得意高流 數數親
(무량소배는 빈빈탈하고 득의고류는 삭삭친이어다)

학은 까마귀가 벗하려 하지 않나니 대붕이 어찌 뱁새와 벗하기를 도모하리오. 소나무 숲의 칡은 하늘 높이 곧게 솟아 자라고 억새풀 숲 가운데 자라는 나무는 석자를 넘겨 자라기 어렵나니 좋지 못한 소인배와는 어서어서 떨어지고 높은 뜻을 지닌 무리와는 자주자주 친교할지어다.

頌曰, 住止經行須善友 身心決擇去塵塵
(송왈, 주지경행송선우하여 신심결택거형진이어다)
型塵掃盡南前路 寸步不離透祖關
(형진소진통전로하면 촌보불리투조관이니라)

게송으로 말하노라
머물고 그치고 행보함에 모름지기 선우와 함께 하고 몸과 마음 결택하여 가시 티끌(애욕집착)버릴지니 가시 티끌 쓸어내어 앞 길 틟리면(번뇌 망상 몰락 놓아 한 생각조차 쉬면) 한 발짝도 아니 떼고 조사관문 꿰뚫으리

其五 除三更外 不許睡眠
(기오는 제삼경외에 불허수면이어다)
曠劫障道 睡魔莫大
(광겁장도는 수마막대니)
二六時中 惺惺起起而不昧
(이륙시중에 성성기기이불매하며)
四威儀內 惚惚惺光而自看
(사위의내에 밀밀회광이자간하라)
一生空過 萬劫追恨
(일생공과면 만겁추한이니)
無常刹那 乃日日而警策
(무상찰나라 내일일이경포요)
人命須臾 實時時而不保
(인명수유라 실시시이불보니라)
若未透祖關 如何安睡眠
(약미투조관인대 여하안수면이리오)

다섯째, 삼경(저녁9시~새벽3시)외에는 잠자지 말라.
아득한 옛부터 도를 가로막는 것은 수마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12시 중(하루 24시간 중)에 늘 또렷하여 의정이 끊이지(흐리지) 않아야 하며 행주좌와 중에 세밀하고 세밀하게 마음자리를 돌이켜 비추어 안으로 살펴라.
한 생 헛되이 보내면 만겁을 두고 한이 따를 것이니 덧없는 세월 찰나이라 날이면 날마다 (세월 흘러감을) 놀래고 두려워 할 것이요.
사람 목숨 잠깐 사이이니 실로 시시각각 보존됐다 할 것이 아니니라.
만약 조사 관문 뚫지 못할진대 어찌 편안히 잠 잘 수 있으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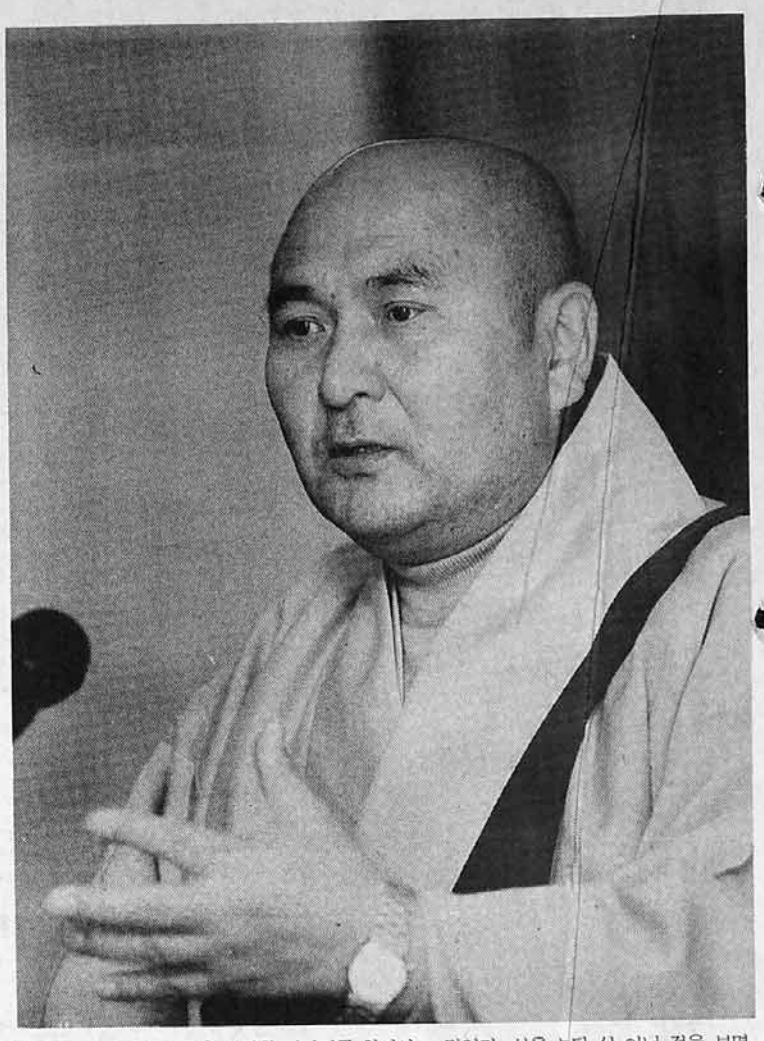
龍 眼

스승과 벗을 잘 가려야 배움 높아져

잠은 큰 적이니 삼경외에 자지 말라

지상 법석

"내 인생 지도자는 바로 자신



근일 스님
<부석사 주지>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니 약견제상비상이면 즉견여래로다.'(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상을 보되 상아닌 것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는 이 말은 우리 모두 다 아는 금강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릇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한데 상을 보되 상아닌 것을 보면 여래를 보는 것이다'고 부처님께서는 설하셨습니다.

머리 기른 성직자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능히 이와같다면 어찌 일을 마치지 못하였다고 걱정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가 일체요, 일체가 곧 하나라는 뜻은 삶과 죽음이 하나요, 지옥과 천당이 하나며 너와 내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인 이치를 안다면 일을 마치지 못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에는 많은 일이 있지만은 공통되면서도 소중한 일은 삶과 죽음의 일이요, 깨달음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인 이치만 안다면 생사대사를 해결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여 걱정할 일이 못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같은 분이 있었을 때에는 불교가 크게 융성했었고 거사들이 변변치 않을 때에는 불교 또한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님네들이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 지위도 높고 많이 배운 거사들이 모임을 갖고 신행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 불교계 뿐 아니라 사회에까지 큰 힘이 됩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더 낫고, 백번 보는 것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더 낫고, 백번 행하는 것보다 한번 깨닫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깐 예불을 하고 죽비를 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이심전심으로 크게 얻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쁜 가운데 어떻게하면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떻게 해야 깨달을수 있겠느냐 하는데 이야기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훌륭한 사람일수록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많이 배운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코 법을 설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을 배울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옛 말에 나를 착하다 하는 자는 나의 적이요, 나를 악하다고 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승찬대사는 "나쁜 말도 관해보면 이것이 공덕이요, 곧 나를 깨우치는 선지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러분들은 머리를 기른 성직자입니다.

머리깎은 성직자가 잘못하면 이 사회가 엄청나게 잘못됩니다.

법이 이 사회를 계도할 때 결과를 대상으로 다스린다면 종교는 분명 그 원인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법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죄지은 것은 다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볼때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종교의 역할입니다.

죄를 지어 놓은 그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다스리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 볼때는 법도 원인을 추론하여 다스린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장차 잘못하면 영창에 간다해서 죄를 안지을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중생은 죄를 짓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아는 것도 힘이고, 건강도 힘이고, 조직도 힘이고, 돈도 권력도 모두 힘입니다. 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힘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숨 한번 멈추면 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영원한 힘은 바로 도(道), 깨달음입니다.

근본을 잘 닦는 그 힘이 바로 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상주불멸의 이치를 말하지 않고 '범소유상이 개시허망하다'는 허망한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우리 중생들은 허망한 이야기를 하여야만이 집착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치시고는 "누구든지 깨달아 있다"하셨으나 아무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상'부터 설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깨달음은 영원한 힘

"모든 고통은 집착으로 부터 온다. 집착을 없앨려면 도를 닦아라"하시며 부처님께서는 49년동안 우리 중생들을 위해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몸뚱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산하대지도 이 우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한 것은 다시 멸하는 것이 그 이치입니다.

상을 보되 상 아닌것을 보면 곧 부처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상을 보되 상 아닌 것을 보면 여래가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또 아주 수운 이치입니다.

부설거사 오도송에 보면 "눈으로 보되 본 바 없으면 분별할 것이 없고, 귀로 듣되 들은 바 없으면 시비가 끊어지니 분별 시비를 다 놓아 버리고 다만 마음의 부처를 보고 귀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불교를 잘 믿고 행하면 판사, 변호사, 검사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인생 살아가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상을 보되 상아닌 것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는 말은 곧 집착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상을 보기는 보되 집착하고 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보기는 보되 눈에 집착하고 보면 좋지 않습니다.

으뜸 공양

현대불교 법공양에 동참해 주신 불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대불교

군법당	약 140개소
병원	약 35개소
복지단체 및 개인	약 12개소
교도소	약 45개소

삶속으로 스며들지 않는 불법은 구두선이요 헛구호일 수밖에 없습니다.
삶은 곧 불법이고 불법은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법한 삶, 그것을 우리는 **참된 삶**이라고 일컫습니다.
저희 현대불교는 소중한 우리의 이웃과 소외와 좌절의 나날을 보내고 이는 분들을 위하여 창간호부터 법공양 운동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1천 7백여 구좌**의 법공양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국의 군법당 및 교도소 등지에 1년간 현대불교를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자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지한 동참에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현대불교와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되어주십시오.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8881. 팩스 : (02) 737-0697